

광주 '무패 행진' 잇기... 전남 '무승' 벗어나기

광주FC·전남드래곤즈

K리그2 33라운드

오늘 광주서 '엘로더비'

광주FC가 안방에서 전남드래곤즈와 '엘로더비'를 갖고 무패행진을 잇는다.

광주는 17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K리그2 33라운드 홈경기에서 나선다.

무패행진을 이으려는 광주와 무승에서 벗어나려는 전남의 맞대결이다.

K리그2 1위 광주는 지난 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8경기 연속 무패(4승 4무)를 기록했다.

광주는 점유율(68%), 슈팅(23개), 유효슈팅(11개)에서 안산에 앞섰고, 상대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점했지만 아쉽게 4연승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승점 62로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아쉬움이 남는 무승부를 뒤로하고 '홍강세'의 광주는 안방에서 다득점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올 시즌 홈 승률 83%를 자랑하고 있다.

'광탄소년단'이 홈 승률 높이기 나선다.

안산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엄지성은 7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상대를 위협했다. '장신 공격수' 허윤은 공중볼 장악과 연계플레이로 공격 전개를 이끌었다.

이희균과 정호연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며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다.

올 시즌 수비의 중심인 주장 안영규가 경고누적으로 그라운드에서 나오지 못 하지만 김재봉이 복귀해 수비 라인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전남은 승리가 고프다.

전남은 최근 15경기에서 승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도 2-2 무승부

를 기록하면서 무승 탈출에 실패했다.

특히 앞선 부천전에 이어 임찬율이 두 경기 연속 선제골을 장식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최근 분위기가 역대 전적에서도 광주가 앞섰다.

1위 광주를 상대하게 된 전남은 올 시즌 4승 13무 11패(승점 25)에 그치면서 10위에 머물고 있다. 광주와의 맞대결에서는 6승 7무 11패를 기록하며 열세다.

하지만 전남은 지난 시즌 K리그2 사상 첫 FA컵 챔피언에 오른 저력이 있는 팀이다.

물론 임찬율과 함께 플라나, 발로텔리, 박인혁, 김현욱 등 한방을 갖춘 선수들이 있다. 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추상훈, 한석희, 김수범 등 결출한 선수도 영입했다.

홈 이점을 앞세운 광주와 '절실함'으로 무장한 전남. 두 팀의 '엘로더비'에 K리그2 팬들의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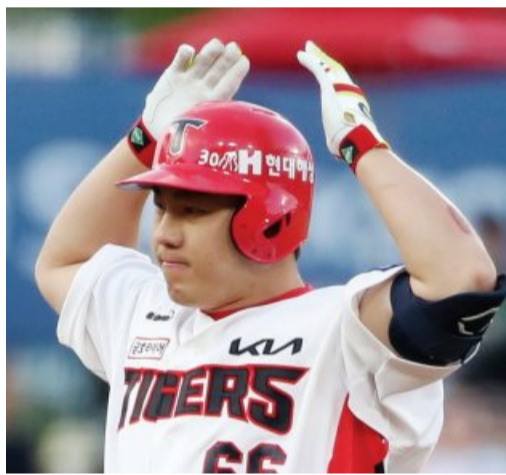


광주FC가 1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나선다. 사진은 광주 공격의 핵심인 허윤이 앞선 맞대결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KIA 순위싸움 열쇠는 황대인·이창진



황대인



이창진

8월 타율 두 선수 모두 1할대 공격 흐름 끊겨... 반전 필요



황대인과 이창진의 성적에 따라 KIA 타이거즈의 순위 싸움 양상이 달라진다.

KIA는 답답한 8월을 보내고 있다. 팔꿈치 부상 등으로 이탈한 장현석에 이어 정상훈, 마무리 정해영까지 지난 11일 오른쪽 어깨 염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올 시즌 KIA의 강점으로 꼽혔던 필승조가 부상으로 해체되면서 '뒷심 싸움'에 비상이 걸렸다.

KIA가 자랑하는 '화력'도 시원치 않다. 박찬호가 톱타자로 나서 달타린 힘을 보여주었고, 나성범도 중심 타선에서 꾸준함을 보여주었지만 불운의 폭발적인 공격력은 아니다.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잔루가 쌓여가고, 승률도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위안은 '최고참' 최형우의 상승세다.

답답한 전반기를 보였던 최형우는 8월 가장 뜨거운 타자다. 최형우는 8월 9경기에서 0.486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4안타의 빈타로 1-5패를 기록했던 지난 14일 롯데전에서는 배락같은 스윙으로 9호포를 기록, 팀의 영봉패를 저지하기도 했다.

생각을 즐기고 최형우다운 스윙을 찾으면서 KIA 타선에 힘이 실렸다. 최형우는 13일 롯데전부터는 4번 타자에 배치돼 화력 재점화를 위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형우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침체의 8월을 보내고 있는 황대인과 이창진의 반전이 필요하다.

KIA는 황대인과 소크라테스의 동반 활약으로 지난 5월 특급 화력을 과시하면서 순위 싸움의 다

크호스가 됐다.

타선의 힘으로 5월 18승 8패를 수확했던 KIA는 6월 10승 1무 13패로 적자 살림을 기록했다. 7월에는 9승 9패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8월에는 14일 경기까지 10경기에서 3승 7패의 성적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황대인은 타율 0.147(34타수 5안타), 1타점이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7월 KBO 월간 MVP 이창진도 8월 1할 타자다. 이창진은 홈런 하나를 더하기는 했지만 8월 10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 8월 타율은 0.114다.

각각 클린업 트리오와 테이블 세터에서 역할을 해줬던 두 선수의 부진으로 KIA 공격 흐름이 끊기고 있다.

소크라테스도 최근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

지난 7월 2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김광현의 공에 맞아 코뼈 골절 부상을 입었던 소크라테스는 지난 2일 한화전을 통해 복귀전에 나섰다.

복귀와 함께 한화 3연전에서 4개의 안타와 2타점을 만들면서 부상 공백 우려를 지웠지만 최근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이다.

1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3루타 하나는 기록했지만 최근 3경기에서 만든 유일한 안타이고 삼진은 2개를 기록했다.

불펜진 비상 속에서도 KIA 선발진 흐름은 나쁘지 않다.

특히 선 놀린과 토마스 파노니가 안정적으로 이닝을 끌고 가주면서 초반 싸움에는 힘이 붙었다. 8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대인과 이창진이 움직여준다면 선발진과 화력의 힘을 앞세운 KIA가 순위 싸움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SSG의 13차전은 비로 취소됐다. 두 팀은 예정대로 파노니와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워 17일 맞대결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저침 없는 김주형 '신인왕' 보인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 13위 페덱스컵 25위 최종전 출전 가능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2-2023시즌 시드를 확보한 김주형(20)이 2019년 임성재(24)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 신인왕 가능성도 부풀리고 있다.

김주형은 15일 끝난 PGA 투어 2021-2022시즌 플레이오프 1차전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총상금 1500만 달러)에서 공동 13위를 기록, 페덱스컵 순위 25위에 올랐다.

이 추세라면 페덱스컵 상위 30명만 나가는 시즌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출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21-2022시즌이 개막할 때만 하더라도 PGA 투어 정규 회원이 아니었던 김주형은 이달 초 원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곧바로 PGA 투어 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또 신인왕 후보가 될 수 있는 10개 대회 출전 조건도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으로 채우면서 일약 신인왕 후보로까지 떠올랐다.

신인왕은 2021-2022시즌 신인 자격이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번 시즌 15개 대회 이상 출전한 선수들의 투표로 정한다.

일단 성적으로 보면 캐머런 영(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

영은 페덱스컵 순위 13위에 올라 있다. 영은 이번 시즌 우승은 없지만 준우승만 5차례 하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된다.

영은 이번 시즌 상금 638만7098달러(약 83억 6000만원)를 벌였는데 이는 역대 신인 최다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016-2017시즌 잭슨 쇼플리(미국)의 431만2674달러였다.

또 PGA 투어 사상 한 시즌에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상금을 번 기록이기도 하다.

이 부문 1위가 지난주까지 윌 찰러토리스(미국)의 670만5082달러였는데, 찰러토리스는 15일 끝난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무관의 한'을 털어냈다.

출전 대회 수가 영은 23개, 김주형은 10개로 차이가 나는 가운데 김주형의 시즌 상금은 288만



김주형

8488달러다.

따라서 김주형이 신인왕을 넘보려면 남은 플레이오프 2개 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페덱스컵 순위에서 영을 추월해야 한다.

김주형은 이미 9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리는 미국과 인터내셔널의 남자 골프 대항

전 프레지던트컵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기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2023년 9월로 연기되면서 세계 랭킹에 따라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주형은 현재 세계 랭킹 19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KIA, 오늘 백혈병소아암 환아 및 가족 100명 초청

KIA 타이거즈가 백혈병소아암 환아 및 가족 100명을 초청한다.

KIA는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광주전남 지역 백혈병소아암 환아 및 가족 100명을 초청해 무료 관람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백혈병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회복과 성장을 후원·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와 함께 한다.

KIA 관계자는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

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특별한 야구장 나들이를 마련했다"며 "어린이들이 야구를 관람하고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타이거즈 열성팬인 배우 백봉기가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승리기원 시구에 나섰다.

백봉기는 '푸른거탑'에서 백봉기 일병역을 연기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에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명품 조연'으로 사랑받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재

나폴리 김민재, 세리에A 데뷔 '합격점'

국가대표 센터백 김민재(26·나폴리)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김민재는 16일 이탈리아 베로나의 마르칸토니오 벤테고디 경기장에서 열린 엘라스 베로나와 2022-2023시즌 세리에A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나폴리 수비의 한 축을 담당, 팀의 5-2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지난달 튀르키예(터키) 페네르바체를 떠나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의 이탈리아 무대 '공식 데뷔전'이다.

한국 수비수로는 처음으로 세리에A에 진출한 김민재는 첫 경기에서부터 자신의 플레이를 선보였다. 든든하게 후방을 지킨 것은 물론 적극적인 볼 결합과 패스, 스피드를 활용하며 돌파 등 매 상황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하는 모습이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상대를 저지하다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그 외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갔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날 팀에서 가장 많은 94회의 볼 터치와 82차례의 패스를 시도했다. 이 중 두 차례가 키패스로 연결됐고, 패스 성공률은 90%에 달했다.

김민재는 또 수비 과정에서 네 차례의 공중볼 경합 중 세 차례 공을 따냈고, 클리어링 4회, 인터셉트 2회, 태클 2회 등을 기록했다.

나폴리를 이끄는 루차노 스팔레티 감독은 김민재의 활약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폴리는 올여름 콜리발리를 첼시(잉글랜드)로 보낸 뒤 대체자로 김민재를 영입했는데, 첫 경기부터 김민재가 빈자리를 잘 메웠다고 인정을 받은 셈이다. /연합뉴스